



**표지사진** : 제3차 워크캠프에 참석한 봉사자들이 인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 (2001. 7.8-22)

**JTS 통권 31호 2001년 9 · 10월**

펴낸날 : 2001. 9. 3

펴낸이 : 법 료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한인봉, 구미경,  
최정연, 장옥희, 김경희, 이순희,  
정영희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http://www.jts.or.kr>

## 인도

4 인도 동계스와리 소식

*인도에서 온 편지*

*인도특집 - 제3차 워크캠프를 참가하고서*

## 북한

9 지금 북한에서는

*백두산에 소풍 다니던 아이*

## 청소년

12 아름다운 청소년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눠요"*

## 그리고

15 후원의 소리

*미국 TEXAS에서*

*JTS 자원봉사를 마치고*

18 활동보고 및 안내

20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3 신규회원 명단

24 특별후원금

25 라진 · 선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30 후원프로그램 안내



## 지바카 병원 (JIVAKA HOSPITAL)

우기철이라 환자가 제일 많은 계절이다. 아침 진료 시간외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일이 잦다. 주로 영양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설사병으로 생명이 위험해지기 쉽다. 그래서 설사병, 말라리아에 대비해서 약을 구입했는데 약값이 만만찮다. 요즘 중기를 이마에 단 어린이 환자가 부쩍 많다. 병원에 오면 간단하게 수술을 해주는데 아이들 뿐 만 아니라 동네 아낙들도 많다. 다음으로는 눈병환자들이 많다. 마을의 주거 환경이나 위생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더 심하다. 빨리 우기가 끝나고 햇살아래 모든 병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 수자타 아카데미 (SUJATA ACADEMY)

수자타 아카데미는 동계스와리의 가난한 아이들의 미래 뿐 만 아니라 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공부외에도 소풍과 견학을 준비한다. 학교에서 매년 점심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과일과 다른 간식을 준비하고 점심은 아이들보고 집에서 가져오라고 했다. 처음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조금 걱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가난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척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두 번 보았다. 게임시간에 이겼을 때와 점심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비록 집에서 늘 먹던대로 사부지와 짜빠티가 다였지만 아이들은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선생님들도 맛보아 주기를 바랐다. 비록 학교 앞산으로 간 소풍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즐거운 소풍이었다.





# 인도에서 온 편지

## 마을개발사업

7월 8일 ~ 22일 워크캠프 (WORK CAMP)

기간에 지어진 동네의 화장실, 샤워

실, 컴퓨터등을 점검하였다. 다 지

어진 동네도 있고 마무리가 필

요한 동네도 있다. 벽돌과 시

멘트등을 더 지원하고 수자타

아카데미 공사장 인부들의 임

금협상이 끝나는 대로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 4월에 이

어 두 번째로 마을 유치원 어린이

들의 건강진단과 계절적 질병 치료를

위한 캠프의 일정이 잡혔다. 8월 16 ~ 8월

25일까지인데 이번에는 부다가야의 정부 의사와 연

계 해서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눈병과 피부병 그리고 고열과 감기

등을 중점적으로 치료할 계획이다. 한동안 가르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이

루어지지 못한 부녀회를 위한 재봉틀 교육이 9월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 가야에 사는 이두시데비 (35살)가 뿌리앙카 교장 선생님의 소개로

학교를 방문하였다. 1주일에 4일 (화, 수, 금, 토)을 교육하기로 했고, 동네

부녀회의 입학 신청을 받아서 반을 나누기로 했다.



## 짧은 소식

여행중인 윤해식 (남 29, 건축 설계사)님이 8월 1일부터 한달간 머물면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다. 건축설계를 한 경험을 살려 컴퓨터로 학교, 병

원 등 기존 건물 도면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제3차 워크캠프를 참가하고서...

자원봉사자 송재익 (남, 28세)



▲  
중앙에 모지썬  
분이 송재익님

3년만에 다시찾은 인도.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와 환하게 웃을 때 하얀 치아가 너무나 이뻐보이는 사람들. 특유의 손짓과 역센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고 맑은 음성으로 인사하는 사람들. 후덥지근한 더위와 시원하고 경쾌한 소나기까지... 이런 인도를 다시 만나게 된 내 마음은 고향에 온 기분이라고나 할까... 봉사를 목적으로 다시 찾은 인도지만 내가 무엇을 주기

보다는 많은 것을 받아가는 인도에서의 일주일 이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시간이 지나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회사 차려 꾸러가고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 아이들 하나둘 아웅다웅 살아가는 삶.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찾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한 평생 살아가는 삶. 그런

삶에 의문을 갖고 사표를 던지고 다시 찾은 인도, 작은 덩치의 여린 맘을 가진 내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스님이 말씀하신대로 의미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을 던졌던 시간들, 의미있는 삶이 가치 있음을 알면서도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멀고 불투명한 시간들 속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막함과 불안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시간들... 나름대로 주어진, 만들어진 시간들 속에서 이 의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찾은 인도,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좀더 의미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좀더 무게에 힘을 얻을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맑고 순진한 아이들의 눈을 보며 그들의 맑은 음성을 들으며 가지런히 모아지는 두손의 평안함을 느끼며 평화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비록 가난과 병이 그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문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투쟁하고 평화와 안락, 풍요로움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우리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우리보다는 주어진 삶에서 하루하루 밝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들 속에 오히려 더 큰 평화와 안락을 느낄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는 우리 마음 자세에 큰 문제가 있음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식, 우리가 하려는 방법만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좋고 싫음을 우리 식대로 판단해 버리는 이런 오류 또한 일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또 내가 무엇을 주어야만 한다는 생각들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표출되어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사실, 봉사 또한 사회생활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주려고 해서도 안되고 받으려 해서도 안된다. 서로의 느낌을 공유하며 자신을 먼저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았다.

일이 끝나는 날 나 나름대로는 일을 완결 짓는 것에 크게 욕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 또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일방적인 생각들은 그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며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나름대로 생각한 후에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노력하고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모습, 공동체의 힘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인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만남의 소중함과 순수함, 때묻지 않음,

주어진 삶 속에서의 행복 찾기는 내가 받은 큰 소득이고 그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기도 했다.

3년전의 인도 생활은 나름대로의 나만의 인도를 각인 시켰다. 그것이 좋은 삶든 그것은 나만의 인도였다. 남의 물건을 잘 가져가고 변명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 인도인이다라는 생각들도 그중 하나였는데... 이번 바가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었다.

공사를 하던 중 마지막날 카메라를 잃어버렸다. 보물 1호였고, 너무나 아끼던 카메라... 이름까지 부여하며 특별한 의미를 두던 카메라였는데... 오전에 카메라를 잃어버렸을 알고 이일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장비 챙기고 말하게 되었다. 내가 왜 그토록 망설였는지 모를 일이다.

즐거운 축제(?)와 같던 시간은 순식간에 아우성과 놀람으로 바뀌고 내마음도 씩씩해졌다. 인사를 하며 산중턱까지 배웅나오던 아이들 손을 붙잡고 나오는데 먼저 와있던 탐필리(바가히 마을대표)가 나를 보며 말을 했다. "나의 마을은 문제가 많다. 나의 마을은 나쁘다.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지 뻔 되는 듯한 인상의 얼굴이 일

그러지고 그 큰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간 하늘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말았다. 무언가를 봉사하기 위해 왔는데 나의 부주의로 마을 분위기를 순식간에 회오리가 치는 듯 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우린 서로 껴안고 울기 시작했다. "이건 나의 잘못이다. 당신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고 마을은 아름다우며 너무 훌륭하다. 미안하다" 조원들의 흐르는 눈물 속에 상처도 받고 큰 소득을 얻으며 우린 산을 넘어야 했다. 평화로운 연못에 돌을 던진 죄책감 같은 묘한 여운과 아쉬움을 남기며... 나는 또 이렇게 받고만 가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내일이면 이곳을 떠난다. 너무나 정들은 인도 식구들, 어린이들, 그리고 최고의 팀웍으로 서로 즐겁게 해줬던 조원들과 작별하며... 인연이라는 묘한 관계를 떠올리며 소중한 추억과 기억들로 내마음은 배부르다. 나마스떼 브라더.

---그 마을의 아이들이 모여서 신에게 기도를 한 덕분인지 송재익씨는 돌아오는 날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



## 백두산에 소풍 다니던 아이

최정연 (한국JIS)

오늘 문득 사무실 벽에 걸려있는 백두산 걸개그림을 쳐다보다, 량강도에 살다 중국으로 온 혁철이가 생각났다. 연길에서 혁철이를 만나던 어느 날, 난 백두산에 올라 천지를 봤다고 자랑삼아 얘기했더니, 자기는 인민 학교 다닐 때 백두산에 소풍을 다녔다고 했다. 가서 천지에서 고기도 잡아먹었다고 하며... 남한에서는 그렇게 가고 싶어도 평생 한번도 못 가보는 사람도 있는데, 잠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백두산을 동네 뒷산처럼 소풍 다니던 혁철이는 홀어머니와 함께 동생 둘을 데리고 살았다. 식량난이 닥치면서, 혁철이가 중국 친척에게 가서 양식을 얻어오기 시작했는데, 두만강변인 친척집에서 지내다가 공안에게 들킬 뻔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 마을을 돌아다니다, 배가 고프면 밥할 때쯤 어느 집 앞에 가만 서 있다가 주는 대로 얻어 먹으면서 살았다. 그후로 연길에 들어와, 다른 조선아이들이 군데군데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하며 시장에서 구걸하며 돈을 모으니, 혁철이도 그렇게 따라 하기 시작했다. 그 길로 그렇게 얻기 시작한 돈을 모아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드

리고 오기도 했다. 그 몇 백 위안이면 동생과 어머니가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안들이 수시로 거리를 수색하며 떠도는 아이들 몰아잡고, 수갑 채워져 감옥에 가서 전기 곤봉으로 얻어맞고 하다보니 갈수록 중국에 사는 자체가 무서워졌다. 때로는 공안에 쫓겨 값싼 비디오방에서도 못 자고, 공사장에서 주위에 남아있던 스티로폼을 깔고 하늘을 지붕 삼아 다른 친구들과 웅크려 자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 사람들 만나 배불리 먹어 보기도 하고, 먹을 것을 못 구하는 날엔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강물로 배를 채우기도 하며 그야말로 거리의 아이로 커갔다.

그런 혁철이가 어느 날 나에게 부탁이 있다며 얘기를 꺼냈다. “아주미, 나 일 자리 좀 알아봐 주쇼.”라고 했다.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 돈 빌려 손 내미는 게 너무 부끄럽다며, 거리에 나가 그렇게 하는 게 싫다고 했다.

그 즈음에 우리 쪽에서도 북한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고, 일도 하게 할 수 있는 분과 연계가 되었기에, 만나는 아이들을 눈여겨보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우선 혁철이를 먼저 보내보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다른 아이들을 보내는 식으로 해보자 하고 철이를 보냈다. 거리를 떠돌며 지내던 아이들은 집에서 보호하자고 해도 스스로 겁잡해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되었지만, 일단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어 보냈다.

하지만 혁철이도 그 공장에서 나가고 말았다. 떠날 때 기차역에서 1년 뒤에는 꼭 내가 철이 만나러 갈테니 그 때까지는 꼭 거기서 있어야 한다고 약속했었는데..... 1년만 잘 지내면, 기술도 다 배우고 한어도 배우며 곧 중국 호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그 나이면 그리 어리지도 않으니 깡패 조직에 걸려들면 빠져 나오기도 어려운데..... 지금은 어디로 혼자 떠돌아다니는지, 아니면 조선으로 다시 잡

혀갔는지... 내내 생각의 꼬리만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 북한 아이들의 현실이고, 북한은 올해도 여전히 하루에 한줌의 쌀로 살아가야 되는, 80만톤 이상의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앞으로도 몇 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굶어죽는 것은 면했지만, 여전히 하루하루를 죽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젠 눈에 보이던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 내의 어린이들은 여전히 그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이다. 어른들이 죽을 먹고 사는데 한창 자라야 할 나이의 아이들은 두말 할 일이 아니다.

이 아침 조용히 맘 모아 다져본다. 더 이상 백두산 산골 소년들이 그 허로운 이국 땅의 먼지 바람 맞으며 떠도는 일이 없기를..... 우리 모두 함께 그 산골 소년들과 어울려 천지를 돌며 백두산으로 소풍가는 날이 오기를..... 모든 이들의 염원으로 나날의 노력이 그 날의 거름으로 잘 쓰이기를.....



##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눠요”

상반기 동안 청소년사업부에서 청소년들을 만나 실시했던 심성수련 프로그램은 3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안천중학교, 부산에 있는 오룡정보산업학교,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성장의 길로 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심성수련입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며 즐거웠고, 그들 나름대로 아픔을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예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소리를 통하여 프로그램 진행 후의 효과가 어떠한지 공유하려 합니다.

한번의 수련으로 크게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살아가면서 자아정체성을 점검할 수 있는,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천중학교 스누피

ㅋㅋㅋ 신리 선생님과 같이 할 때 너무 재미있었다.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옷이 너무 특이해서 놀랐  
었다. 찰흙을 연상해서 사람의 모양 바꾸는  
거, 연극, 물감놀이, 눈감고 뚫 거..

모두 재미있고 신났었다.

너무 하기 싫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다 했다.

내가 자랑스러웠다.

모르는 사람과도 친해져서 좋다. ㅋㅋ ^^;;



### 안천중학교 박대옥

처음에는 잘 몰랐다. 그런데 점점 하니 재미가 있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많이 늘었다. 친구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못 했는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과도 얘기해 보고 친구들과도 더 친해질 수가 있었다. 신리 선생님이 잘 해 주셔서 너무나 좋다.

## 오름정보산업학교 송성섭

첫날 아침 참선과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이 짜증이 나고 힘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난 둘째날 오전 제이티에스라는 단체의 봉사활동을 담은 비디오를 보고는 나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왔는지 부끄럽기만 할 뿐이었다. 누구는 못 먹어 죽어 가는데, 나는 순간순간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지내 지낸날이 지금 이 순간 너무 부끄러워진다. 셋째날 난 그 날 하루만큼은 나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던 것 같다. 맑은 물 붓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잉크로 물들어 있는 물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서 맑히는 것이었다.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에는 열린 한마당을 통해 우리 팀 2조가 한 몸이 되어 다른 팀에게 좋은 모습도 보여 주었다. 지금 이 순간 난 나의 몸과 마음이 청결해져서 영연해졌으면 좋겠다.

## 오름정보산업학교 김시현

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점점 자라면서 영웅심과 호기심에 안으로만 감추어 두었던 웃음과 밝은 생각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변했다면 변한 것이겠지요.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님처럼 함께 했던 선생님과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일깨울 수 있었던 것 역시 제게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맑은 물 붓기를 하며 더욱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다음에 다시 이런 시간을 가진다면 훨씬 나은 모습이 되어 있도록 이 수련이 끝난도 지금 제가 가진 마음만은 영연히 간직하며 살고 싶습니다.

## 여름심성수련 김재철

휴~! 참엔 정말로 오기 싫었다. 고귀하고 중요한 방학기간에 수련회를 가라니 ... 그것도 4박 5일이나~! 하지만 엄마의 설득에 난 또 넘어가고 말았다. 가장 기억에 남

는 것은 물놀이와 맑은 물 붓기이다. 물놀이는 정말 재밌었다. 비록 가는 길에 멀고 더워서 짜증났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맑은 물 붓기! 감동적이었다. 솔직히 막 울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미지 상! 케케케...

나 진짜로 열심히 할거다. 진짜로 많이 힘들고 괴롭고 나쁜 것들이 유혹한다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 수련회에 와서 좋았고, 다른 것에서 몰랐던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다.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형, 누나, 동생, 친구들 (수련회) 모두 고맙다. 다음에 볼 땐 더 나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 여름심성수련 권동휘

처음에는 오랫동안 집생활에 익숙해져서 적응이 되지 않았다. 4박 5일이란 기간도 나를 부담스럽게 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적응하며 즐기다 보니 집생각도 사라지고 이곳이 집처럼 느껴진다. 그 동안 많은 일 있었다. 물놀이와 단체 활동이 재미있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대화 시간이었다. 난 원래 남 앞에 내 의견을 그다지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힘든 점이 많았다. 나보다 더의사 표현을 못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역시 고쳐야할 문제점인 것 같다. 오늘은 물잔을 부으며 자신의 맘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에도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하던 나에게 더욱 힘든 일이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중에는 나도 생각했었던 말을 할 수 있었다. 기분이 전보다는 한결 나아졌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의사를 분명히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성장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안천중학교 수련과 여름심성수련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미국 TEXAS에서

김순영 (여, 36세)

이땅을 정토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토회의 모든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몇 대의 선풍기 바람으로 해결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곳 생활이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은 몇십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강바닥이 말라 붙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 마다 가슴이 아파옵니다. 또 이제는 장마로 인한 폭우피해를 걱정해야 하니 정토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분들이 생각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TEXAS A&M 대학교 한인불교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순영입니다. 99년 가을과 2000년 봄에 부산정토법당에서 불교대학 강좌와 법륜스님 법문을 듣고 오계 수계를 받고 2000년 7월에 166차 깨달음의장을 마치고 미국에 온지 1년이 되어가는군요. 98년 여름 한국에 나갔다가 불교를 만나게 되고 다시 1년 뒤에 정토를 만나게 된 것이 제 인생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인연 같아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불교학생회는 학교의 학생회관에 방하나 빌려서 매주 금요일 회원들끼리 모여 저녁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회원이러야 십여명 가족회원 그리고 10여명의 싱글 회원들이 전부입니다. 한인교회가 2곳, 성당이 하나 있지만, 모두들 불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조출하지만 매주 법회를 연다는 것이 아름답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봉해서 보내는 돈은 올해 7월까지 법회할 때 보시함을 두어서 모아진 보시금입니다. 이렇게 모인 보시금을 제3세계와 북한 어린이돕기 활동을 하고 있는 정토회에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서 한국으로 가는 학생편으로 145불을 보냈습니다. 이 돈은 JTS에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70불과 11,000원은 지난번에 학교 아파트에서 북한 어린이돕기를 하려고 불교회원 몇분들께 물건을 기증받아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이돈은 JTS에서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에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85불은 저희부부(민덕홍, 김순영)가 미국 동전을 모았습니다. 통일폐지 대신 고추장병에 넣어서 모았지만 통일폐지에 모은 것으로 하고 은행에서 바꾸었더니 85불이나 되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정토회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부처님의 가피속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JTS 자원봉사를 마치고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3학년 성은영

고등학교때 흔히 하던 내신성적에 포함되는 의무적인 사회봉사만을 하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회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작정 사회봉사를 신청하러 갔더니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있더군요. 하지만, 그 단체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저로서는 그저 시간이 맞는 곳들 중에서 잘 모르는 시험문제의 답을 찍듯이 고르는 것만이 가능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날, 불교 법당같이보이던 '정토회관' 건물을 앞에 두고 그 주위에 서 30분이나 헤맸습니다. JTS가 그 건물 2층인 줄도 모르고, 전 그저 조그만 사무실을 예상하고 있었고, 게다가 불교와 연관이 되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날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서 JTS에서 제작한 홍보비디오를 보았습니다. 그 간의 활동들이 잘 설명되어 있어서 JTS가 어떤 단체인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한가지 바라고 싶었던 점은 봉사를 함에 있어서 눈높이와 자세를 좀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봉사'와 '무상제공'의 차이가 잘 표현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좀 더 써야 제대로 진심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요^^

봉사 첫날, 제가 한 일은 회원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컴퓨터상의 기록과 회원카드의 내용을 비교, 정리하고 후원금이 끊긴 회원들의 목록을 따로 작성하는 일이었는데, 그 날은 제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 놀라웠던 점은 바로 회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제가 3시간동안 했던 것은 'ㅎ'으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회원들의 카드관리였는데 한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있구나!' 란 생각이 들면서 놀라기도 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날 이후 계속했던 회원관리를 통해 매달 3000원씩이나마 지난 6년 간 한번도 거르지 않고 후원하시는 어느 할머니.. 한달 용돈을 쪼개어 매달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한 고등학생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계속되면서 흐뭇한 마음도 점점 더해갔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게 더웠나봅니다^^ 많은 회원카드를 정리하던 중 어느 날 후원해주시던 회원의 사랑으로 발송중지가 된 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뿐더러, 이름조차 생소한 어떤 사람의 죽음에 그렇게 놀라고, 마음이 동요될 수도 있는지, 착잡하기도 하고, 기분



이 이상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제가 낯설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제가 살아가는 동안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을지,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받던 그 날 처음 만나게 되었던 '최 대원심' 선생님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처럼 이번 JTS에서의 경험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됩니다.

회원카드관리말고도 발송업무에 관한 일도 했었는데, 봉투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일일이 접고, 폴로 봉투를 봉하고 우편번호별로 분류하는 일들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또한 끝이 없을 것 같던 많은 발송분량이 여러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하다보니 어느새 마칠 수 있는 걸 보면서 '한사람 한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참 무서운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JTS에서 하는 여러 봉사업무 또한 그렇겠지요^^ 개인주의가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던 제게 더불어 산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휴지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깜박 잊고 안 가져 왔습니다. 갑자기 휴지가 필요해서 책상 위랑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어느 곳에도 휴지가 없더군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문득 화장실에 가보면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도 휴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지나가시던 어떤 보살님께 휴지가 어디에 있냐고 여쭙봤더니, 1층 화장실에서만 쓴다고 하시더군요. 그땐 정말 참피했습니다. 여러 번 이곳을 드나들면서 왜 한번도 주위를 눈여겨보지 않았을까! 어느새 익숙해져버린 주변에 대한 무관심이 탄로 나서인지 참피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성도 많이 했지요.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 각자 자신의 일만 충실히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란 예전의 제 생각은 참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때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또 조금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 도움을 나눠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시나 봅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던 그 말이 이토록 가슴에 사무칠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JTS에서의 여름학기 사회봉사를 통해 얻어 가는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JTS식구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인도 장기 봉사자 파견

### 한국 JTS 6개월 장기 해외 봉사단 파견

세계 청년 봉사단 (KOPION) 주관으로 모인, 해외파견 자원 봉사자 4명 (여자 2, 남자 2)이 8월 26일 인도 등게스와리 마을로 떠났다. 이들은 내년 1월말까지 마을 개발의 건축일과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무료급식 활동 등을 하게 된다.



## 해외 사업팀 귀국, 활동중

JTS 북한 지원 사업을 중국 현장에서 맡아오던 구미경님, 한인봉님이 귀국하였다. 지난 활동들을 평가 정리하며, 앞으로 대북 지원의 다양한 창구 모색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인턴 활동을 했던 장옥희님이, 일본 현지 생활 1년을 정리하고, 지난 6월에 귀국하여, 현재 활발히 일본과의 교류 준비 및 모임을 맡고 있다.

몽골에 파견되었던 최정연님이 자연 재해 지역 하르호른에 밀가루 긴급지원과 빈민지역 초이발산에 의류 및 담요 지원을 마치고 서울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 국내사업

### 실직자를 위한 무료수련

현재 실직하였거나 구직 중인 사람을 돕는 깨달음의 장과 나눔의 장 수련프로그램이 정토수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문의: 02-587-8756(정영희)

###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성장의 길로” 여름 청소년 심성 수련을 마치고...

8월 5일부터 9일까지 문경정토수련원에서 청소년 심성수련을 가졌다. 중 고 등학생 17명 참가해서, 진행을 난승법사님과 김애경 선생님이, 돕는 이에는 최 정연, 문금영, 이상임씨가 함께 했다. 프로그램은 자연에 함께 어울리면서 자신감 찾기, 자기 생활 돌아보기,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수련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교류하며, 학생들이 뿐 만 아니라 부모님들과도 상담으로 이어져, 서로 “마음을 열고 자기 성장의 길로” 함께 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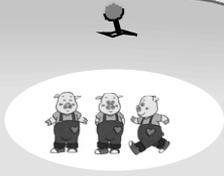


### 오륜정보산업학교 여름수련진행

겨울수련에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 여름수련은 청소년 70여명, 간식준비와 진행, 돕는이 30명 모두 100명이 함께 했습니다.

### 중간실적 보고서 제출

실직자 수련을 지원받고 있는 행자부와 청소년수련을 보조받고 있는 서울시에 각각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고(8월 16일), 심사인터뷰(8월 18일, 20일)도 모두 마쳤습니다.



#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6.1-8.13)

## ● 개인 및 단체

강경임 20,850	강기근 50,830	강기욱 5,150	강동민 1,840	강민혁 2,770	강세집 5,270
강수진 1,750	강이슬 14,830	강지윤 4,000	강태형 30,000	강현준 5,000	강희복 40,000
고명주 15,160	고승연 2,290	고은성 5,210	고은아 1,000	고은지 1,000	공여진 18,720
곽봉준 19,500	곽수영 25,750	곽영술 53,430	곽혁 9,050	곽화순 20,000	좋은벗들 20,020
국군마산병원p.x 4,000	국군마산병원p.x 4,460	권내경 20,000	권소윤 39,930		
권영미,박성빈 24,530	권우진 27,070	권유진 14,680	권인지 3,230	권임정 8,760	
기민영 18,380	김기인 2,820	김순용 15,900	김청임 14,420	김기영 5,000	김가원 2,520
김갑배 6,190	김강일 7,620	김경오 1,410	김경오 1,410	김경정 8,700	김경희 3,340
김경희 7,000	김광식 30,000	김남식 32,020	김대진 7,460	김덕숙 4,030	김덕유 16,950
김동규 2,960	김동연 55,850	김동윤 24,450	김륜희 3,000	김만수 26,100	김명렬 20,000
김명성 8,280	김명숙 30,130	김미경 8,000	김미경 20,460	김미은 3,800	김미정 12,630
김미혜 22,300	김민영 2,950	김민욱 23,950	김민정 28,970	김민지 920	김민지 5,210
김병섭 25,020	김보라 900	김상태 20,980	김서희 11,700	김선웅 20,210	김세훈 31,190
김소라 28,170	김소라 8,230	김소영 36,150	김소영 3,800	김소원 2,810	김소현 9,260
김수경 3,350	김수중 5,440	김수진 8,900	김여진 20,870	김영숙 30,220	김영임 38,820
김영호 2,590	김영희 18,400	김용궁 920	김위숙 19,420	김위숙 19,420	김유나 3,270
김윤정 18,210	김윤희 3,810	김윤희 15,910	김은별 17,170	김은옥 2,500	김재춘 40,000
김재현 3,390	김재현 1,890	김재현 8,990	김정숙 29,790	김정숙 11,900	김정숙 7,530
김정애 10,530	김정희 12,900	김정희 6,960	김종명 9,560	김종무 13,850	김종민 3,330
김종원 11,400	김종현 11,200	김주양 21,040	김주원 3,650	김준희 5,170	김지수 100,880
김지연 2,700	김지윤 16,000	김지현 8,900	김지혜 20,340	김진생,진성 45,560	김진혁 19,560
김진형 5,970	김찬욱 69,570	김창섭 10,000	김창섭 10,000	김창심 10,000	김창심 10,000
김창심 10,000	김창심 10,000	김태한 13,670	김한술 16,000	김혁중 6,910	김현영 17,410
김현우 5,560	김현우 10,260	김현주 27,000	김현주 15,610	김현진 3,250	김혜린 17,100
김호행 4,830	김희정 20,480	김희정 8,590	김희정 6,610	김희진 1,300	
나영록,나수지 11,240	남계희 30,670	남기준 5,400	남승훈 6,790	남한고등학교 243,680	
노성민 3,740	달리 71,500	도연 10,040	류경민 2,580	묘숙 25,960	무명 21,450
무명 22,350	무명 8,460	무명 5,000	무명 5,000	무명(분홍색) 460	
무명(분홍색) 4,310	무명(주황색) 2,040	무명(주황색) 12,500	무명(주황색) 6,380		





무명(주황색) 6,420 무명(주황색) 8,770 무명(주황색) 15,050 무명씨 3,350  
 무명씨 44,670 무명씨 37,800 무명씨 32,010 무명씨 6,560 무명씨 24,200 무명씨 27,240  
 무명씨 38,100 무명씨 1,600 무명씨 3,010 무명씨 11,420 무명씨 2,990 무명씨 17,530  
 무명씨 18,180 무명씨 12,190 무명씨 13,450 무명씨 10,160 무명씨 8,120 무명씨 17,090  
 무명씨 800 무명씨 4,340 무명씨 57,480 무명씨 3,320 무명씨 2,940 무명씨 1,770  
 무명씨 12,930 무명씨 2,000 무명씨 1,710 무명씨 2,520 무명씨(연녹색) 19,350  
 무명씨(핑크돼지) 20,700 무주상 5,000 무주상보시 22,000 문수빈 10,620 문형곤 33,870  
 문희구 4,080 민덕홍 172,790 민한식 18,110 박경순 2,300 박공희 6,700 박민주 12,180  
 박명환 17,230 박미희 400 박미희 2,220 박보성 5,080 박성은 6,840 박성은 4,280  
 박세영 19,080 박세준 39,220 박소현 5,000 박수연 9,850 박수옥 23,400 박수진 6,900  
 박숙림 10,500 박연실 48,020 박연이 21,050 박옥순 14,940 박옥정 37,850 박의성 5,000  
 박인숙 41,180 박인자 7,710 박정선 21,760 박중부 80,000 박중수 23,410 박종식 22,340  
 박주현 12,170 박준엽 3,760 박준자 25,050 박지훈 6,230 박지훈 5,000 박진아 3,910  
 박진우 22,310 박찬분 2,660 박창환 4,950 박한성 5,380 박형준 6,150 박형준 23,470  
 박형철 750 반석영 9,350 반재원 13,580 방은옥 5,010 방혜수 18,000 배수기 15,550  
 배현이 22,950 백상희 5,470 백유선 6,620 백제병원 3,580 백지연 12,870 백혜은 9,310  
 박경미 33,780 법정부서장 17,000 변상민 5,420 변암연 11,730 서귀순 4,030 서다운 4,120  
 서수정 3,250 서숙남 5,700 서숙이 200,000 서주영 3,180 서한솔 5,000 설갑문 12,140  
 설명규 8,860 성남중학교 30,630 성산초등학교 25,080 성은지 9,000 손성연 17,540  
 손옥순 49,930 손인천 12,870 손창원 38,400 손호정 30,000 손호정 28,440 송경옥 8,620  
 송복숙 26,570 송영화 29,300 송영화 29,300 송지나 2,920 송지연 1,540 승환 5,030  
 신승자 4,980 신운호 3,390 신정열 22,750 신현자 2,040 신현종 37,040 신혜자 18,710  
 심석영 83,600 심석영 35,770 심지윤 3,580 심지혜 4,300 안보영 15,720 안준우 3,810  
 양순기 14,170 양승준 11,780 양아영 3,270 양연옥 6,260 양연옥 6,260 양정욱 8,150  
 양지은 27,520 양현탁 27,300 양현호 26,390 양효직 4,870 염소윤 7,300 염영도 7,300  
 염태영 20,390 연가님 50,000 연동혁 1,090 열리는 어린이집4 22,580 열리는 어린이집1 9,800  
 열리는 어린이집2 15,400 열리는 어린이집3 27,300 염지희 12,520 오경서 13,920  
 오상민 7,120 오선진 7,060 오세옥 2,600 오세진 5,490 오수빈 7,690 오인성 2,000  
 오재경 11,920 오지선 2,800 오지연 3,000 오현수 69,920 웅소연 5,680 우보영 2,780  
 우승지 2,950 원옥순 14,900 유경동 27,530 유경동 26,820 유경동 36,610 유규진 8,990  
 유미림 8,680 유성민 7,250 유순호 60,000 유아정 21,610 유아경 10,250 유영재 5,590  
 유윤식,인기숙 228,840 유은정 8,470 유인자 13,000 유재흠 27,270 유정호 1,720 유정훈 13,790  
 유준혜 1,150 유지현 2,200 유초목 5,000 유현 6,610 윤남숙 100,000 윤선주 3,690  
 윤소연 6,290 윤아름 10,430 윤영소 7,300 윤영희 12,300 윤종원 5,000 윤현선 4,810  
 윤혜선 1,710 윤희 2,140 윤후영 14,760 은승호 8,950 음진석 7,700 이경선 11,580  
 이경숙 20,160 이경애 19,240 이경애 12,640 이경은 11,410 이경 13,540 이경진 7,780  
 이근영 5,340 이근희 17,570 이금희 30,000 이기갑 26,000 이남선 15,860 이남욱 2,350  
 이도훈 20,400 이동주 31,660 이동준 4,380 이명희 17,000 이묘임 18,680 이문숙 15,050





이백만 5,000	이부선 5,110	이상무 2,960	이상민 11,300	이상인 6,550	이상준 1,830
이상준 7,040	이석재 26,670	이선웅 8,840	이선화 24,450	이성현 3,840	이세라 4,830
이소현 15,330	이송화 23,310	이수남 22,860	이수환 1,900	이숙희 64,050	이순근 9,580
이순임 26,000	이순자 3,140	이송숙 2,970	이영길 23,050	이영민 1,590	이영배 9,500
이영조 18,470	이영준 1,170	이영현 9,540	이영희 20,000	이예지 3,000	이완수 7,440
이용남 17,560	이용석 11,230	이용성 5,730	이우성 5,000	이유정 6,360	이유진 4,810
이윤,이진41,590	이윤현 27,580	이은사 2,200	이은선 27,460	이은수 7,000	
이은수 3,400	이은숙 18,660	이은주 23,340	이의영 21,100	이재훈 18,800	이정매 13,920
이정선 14,040	이정애 12,640	이정예 114,400	이정옥 9,460	이정인 3,200	이정진 18,990
이종근 4,670	이종일 9,690	이종찬,김연희 20,450	이종하 12,330	이주향 22,040	이주현 1,550
이주희 9,470	이지연 3,720	이지옥 6,800	이지현 11,760	이충만 2,270	이충숙 3,030
이한샘 5,000	이한솔 5,000	이해선 24,900	이해일 23,510	이항록 21,380	이현정 11,910
이형원 6,840	이혜민 18,920	이호원 4,940	이홍인 37,110	이화는 12,430	이화는 12,430
이호경 1,210	임경희 3,790	임성호 5,990	임세미 5,440	임영옥 2,840	임은숙 20,000
임은숙 20,000	임제정 9,570	임채호 5,000	장민지 5,000	장서윤 13,830	장선일 18,940
장성화 25,270	장여진 1,290	장영애 15,760	장종원 12,240	장혁 4,830	장현수 15,510
재수민 310	전병득 38,270	전예지 5,000	전외자 10,110	전우주 5,000	전은지 4,060
전주영 5,280	전지희 8,740	전찬영 9,460	전현정 2,450	전현주 2,180	정경선 50,000
정경주 25,360	정귀희 14,770	정규덕 30,340	정근혜 25,900	정남식 21,640	정다혜 7,800
정미옥 146,200	정상신 25,910	정성영 32,750	정세현 3,560	정순자 8,040	정영부 16,670
정지우 12,120	정지훈 22,150	정진욱 4,560	정찬영 3,890	정천현 21,000	정태영 12,310
정태화 16,470	정택만 7,530	정훈정 15,730	정희라 31,880	조미화 2,300	조소현 7,300
조영울 12,280	조영진 7,410	조인호 4,380	조인호 4,380	조재형 50,060	조준현 14,710
조태현 15,390	조현 6,150	조현록 17,190	조현우 8,130	조혜란 7,230	조혜미 3,990
조혜원 5,000	조희정 10,000	조희정 2,780	지동영 2,750	지숙희 11,700	지을수 4,120
진가경 4,060	진현고 3,000	차지혁 7,030	채석기 26,050	채예린 15,520	
최당초교3-3 21,570	최경숙 30,830	최경순 25,300	최경순 25,300	최귀옥 16,990	
최기주 87,000	최덕해 12,150	최동욱 17,880	최문정,최은정 9,150	최미옥 45,050	
최미전 28,790	최병훈 1,650	최성희 15,630	최영동 28,400	최영우 3,990	최용근 23,820
최용근 23,820	최유리 30,000	최재연 8,500	최정근 8,580	최정옥 17,370	최정현 25,300
최지운 13,660	최혜정 24,280	최화숙 2,390	최효선 7,380	하근수 15,730	한계례 1,610
한동훈 3,220	한마음선원 33,790	한마음선원 34,920	한마음선원 70,120		
한옥영 12,350	한인구 32,750	한주는 17,130	한초자 50,000	함선옥 30,000	허건영 5,000
허서중 100,000	허소현 5,000	허유균 9,290	허희정 11,880	현수정 10,230	호지성 11,080
홍경희 100,000	홍관희 5,000	홍대춘 51,350	홍수정 5,500	홍윤정 9,340	홍재식 14,780
홍진금 56,860	홍진기 9,910	홍진성 17,910	홍한별 2,370	홍현주 10,860	황귀숙 19,000
황민호 25,510	황선옥 30,000	황연화 15,300	황애나 2,760	황옥녀 2,950	황유빈 3,580
황창연 13,740	황한섭 6,920	LA정도희 609,937			





#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1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 북한 어린이 결연

김영숙 211-02394-11  
 조흥열 211-02395-11  
 박인숙 211-02396-11  
 김용규 211-02397-11  
 신광호 211-02399-11  
 김은희 211-02400-11  
 박선화 211-02401-11  
 김현철 211-02402-11  
 서동일 211-02403-11  
 김호진 211-02404-11  
 황현심 211-02405-11  
 김봉찬 211-02406-11  
 김영복 211-02407-11  
 정현근 211-02408-11  
 송하경 211-02409-11  
 김종삼 211-02410-11  
 허지영 211-02411-11  
 상용스님(박숙자)

211-02412-11  
 정여음 211-02413-11  
 김미량 211-02414-11  
 류경화 211-02415-11  
 이용석 211-02416-11  
 이직녀 211-02417-11  
 김재성 211-02418-11  
 김 량 211-02419-11  
 박라영 211-02420-11  
 최재영 211-02421-11  
 이재선 211-02422-11  
 최정화 211-02423-11  
 박상웅 211-02424-11  
 조명숙 211-02425-11  
 김재천 211-02426-11  
 김재용 211-02427-11  
 이은숙 211-02428-11  
 박성중 211-02429-11  
 정영자 211-02430-11  
 이한규 211-02431-11

박석례 211-02432-11  
 강자인 211-02433-11  
 김용주, 강인영  
 211-02434-11  
 김경지 211-02435-11

## 인도 어린이 결연

곽명희 111-02554-14  
 유광준 111-05555-14  
 최재은 111-02556-14  
 김은희 111-02557-14  
 김홍섭 111-02558-14

## 단체 결연

인헌중학교통일돼지팀(2)  
 212-00227-11  
 진여당 212-00228 -11

## <7월의 입금자 명단>

2001년 7월 제이티에스 후원금을 보내주신 명단입니다.  
 주소를 몰라 소식을 보내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주위의 인연이 닿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 한빛은행- 최금숙(5천)
- \* 국민제이- 서성갑(5천) 신경승(2만) 백운관(1만) 노희순(5천) 송평자(2만) 김민근(1만)  
 안순득(5만) 강현구(2만) 문해순(1만) 서경숙(1만) 문길련(5천) 김예지(2만)  
 유강하(5천) 김정혜(1만) 윤금주(2만) 박정애(1만)
- \* 국민동포- 유경자(1만) 도상금(2만) 백성현(1만) 신명화(1만) 엄호순(1만) 윤현혜(6만)
- \* 농협제이- 황세현(2만) 박해연(5만) 구이홍(3만) 이승희(3만) 유혜선(5천) 변성윤(1만)  
 신경화(1만) 심옥희(5만) 박근직(1만) 임경미(5천) 최춘순(3만) 정희택(5천)  
 양창모(2천) 박순자(1만) 최병준(1만)
- \* 주택제이- 김진아(3만) 이인숙(20만) 김창우, 김미선(10만) 양동현(1만3천) 양창모(2천)  
 김진철(1만) 류계조(5천)
- \* 외환제이- 공현미(1만8천) 이귀숙(3만) 김준조(1만)
- \* 조흥제이- 오금실(6천) 김민정(1만) 정병화(3만) 양창모(2천) 이동범(5천) 최규은(5천)
- \* 우 체 국- 장원익(3만) 박옥희(5천) 김재홍(5천) 하용린(1만)
- \* 하나제이- 최이선(10만) 양정화(5천)
- \* 한빛제이- 최진자(2만) 조현(10만) 윤규희(1만) 양창모(2,370원) 윤선애(1만) 이지복(2만)  
 유상원(1만) 정환호(1만) 박주영(1만) 채창원(1만) 배정환(1만)
- \* 국민결연- 강나성(6만) 주호준(1만) 김학근(2만) 유숙이(3만) 정현욱(2만) 한옥이(3만)  
 곽욱(3만) 신동우(5천) 신은경(1만) 김영범(2만) 박근배(1만) 김경옥(5천)  
 김영자(5천) 장성우(2만) 안정애(5만) 윤삼성(1만) 이태수(6만) 이항범(5천)  
 임완수(2만) 김영자(5천) 김미영(6만)



## 특별후원금

2001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들어온 명단입니다

### 특별후원금

- \*텍사스A&M 대학교한인불교학생회-  
\$215(272,400)
- \*익명-6만원
- \*김재희-40만원
- \*관동취어머니-10만원
- \*구길용-20만원
- \*이대훈-10만원
- \*윤미희-30만원
- \*익명-5만원
- \*풍문여고푸르디학생회-369,750원
- \*안정애-5만원
- \*포럼2001-533,600원
- \*야호어린이집-23,920원
- \*민평협-26만원
- \*법성화-11만4천원
- \*백경림-5만원
- \*권소윤-10만원
- \*선덕사-221,600원
- \*박정순-10만원
- \*여영학, 김호철, 정영원, 최종민, 조숙현-  
150만원
- \*익명-5만원
- \*김재성-35만원
- \*문금영-20만원

### 특별후원물품

- \*아기방-어린이의류 2box
- \*한경숙-머리핀 4box

### 부산 오륜정보산업학교 수련 성금, 보시물

- \*대구법당(최현태)-50만원
- \*심산스님-20만원
- \*김휘숙-10만원
- \*하경화-5만원
- \*백인순-2만원
- \*정순완-쌀3도
- \*김선자-계란70개
- \*구길용-선물용 액자60개

# 라진·섭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1. 8. 20 현재

(※  미결연된 곳입니다)





#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1. 8. 20 현재

라질 · 산봉 유치원 · 탁아소 견학현황

---

2001. 8. 20 현재





#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1. 8. 20 현재

라질 · 산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

2001. 8. 20 현재



# 후원 프로그램

##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1만원이면 인도어린이 50명에게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 80이면 펌프를 설치하여 한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고, 각종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정기 거리모금 행사

서울 :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산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까지 동부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거리모금을 하고, 한달에 한번은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부산역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 : 첫째 수요일은 정기적으로 모금을 하고, 한달에 한번은 상황에 따라 날짜를 정하여 모금을 하고 있다.

## 물품후원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기업이나 유치원 등에 남아있는 재고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가방, 신발, 장난감 등

##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사전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일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앨범정리, 스크랩 등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E-mail: jts@jts.or.kr

http://www.jts.or.kr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